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11.8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英, 핵잠수함 조선소에서 화재, 러시아 사보타주 의심
 - 10.31 언론은 영국 해군의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영국 최대 조선소에서 의문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,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의 사보타주 (파괴공작)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
 - ※ 언론은 올해 5월 폴란드 쇼핑몰 화재, 7월 영국 DHL창고 화재 및 독일 DHL 물류센터 화재 사건의 배후를 러시아로 지목
- UN, '국제 테러 방지 협력 강화' 고위급 회담 개최
 - 11.4 UNOCT는 쿠웨이트, 타지키스탄 공화국과 공동으로 '국제 테러 방지 협력 강화' 등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('24.11.4~5), 보다 효과적이고 민첩한 테러 방지 조치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

미주

- 北美행, 항공 소포서 화재 연발
 - 11.5 언론은 최근 북미행 항공기에 실릴 예정이었던 소포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가 지목됐으며 소포는 전기 안마기였고 마그네슘을 이용한 발화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
 - ※ 소포들은 리투아니아에서 발송됐고 이후 독일 라이프치히와 영국 버밍엄의 DHL 물류센터에서 각각 발화됐으며 목적지는 미국과 캐나다였다 부언
- 美, 메타플랫폼 AI 모델 국방·안보 분야에도 사용 허가
 - 11.5 언론은 메타플랫폼이 그동안 군사, 전쟁, 핵산업, 스파이 활동 등에 사용을 금지해온 AI모델 라마를 美 정부 기관과 국방 계약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보도

중 동

○ 이스라엘, UNRWA 활동 금지 법안 가결

(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) 1948년 1차 중동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팔레스타인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

- 10.30 이스라엘 의회는 UNRWA가 이스라엘 및 東예루살렘 등 점령지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하고 테러 단체로 지정 및 이스라엘 정부와의 소통·협력을 금지했다고 보도

※ 同 법안에 한국 포함 7개국 이 우려를 표했지만 이스라엘은 前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도 사망 당시 UNRWA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도

○ 美, 시리아 ISIS 근거지 폭격으로 조직원 35명 제거

- 10.31 언론은 美 중부사령부가 시리아에 위치한 ISIS캠프를 공습하여 35명의 조직원을 제거했으며 同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도

※ 외신은 美 정부가 이번 공습의 명분으로 ISIS의 조직 재건 시도를 내세웠으며, 시리아에서 내년 9월까지 일부가, 잔류병력도 '26년 말 철군 예정이라고 부언

아 · 태평양

○ 파키스탄 극단세력, 소아마비 예방접종팀에 총격

- 10.30 언론은 괴한들이 파키스탄에서 예방접종 의료팀에 총격을 가해 경찰 2명과 공격한 괴한 3명이 사망했으며, 해당 지역이 파키스탄 탈레반의 거점인 만큼 이들이 배후일 수 있다고 보도

※ 일부 이슬람 성직자들과 극단주의 세력은 소아마비 백신이 非이슬람적이고 무슬림 어린이들을 불임 상태로 만들려는 서방의 음모라며 반대한다고 부언

○ 北, 러시아 전선에서 최신 드론戰 습득 우려

- 10.31 언론은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軍 장교 500여명이 투입되었으며, 특히 「리창호」 정찰총국장은 무인기를 활용해 대남·해외 공작을 총괄하는 자로 전선에서 드론戰 전술을 습득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보도

※ 통일연구소는 무인기가 우크라이나전의 게임체인저로 거론되며, 북한軍은 무인기 정찰 활동과 자폭 활용 노하우 등을 러시아와 공유할 수 있다고 예측

파키스탄, 발루치스탄주 퀘타 경찰학교 테러

- '16. 10. 24 파키스탄 퀘타에 위치한 경찰학교에서 무장 괴한이 기숙사에 침입하여 총격·자살폭탄 테러를 자행, 최소 61명 사망·118명 부상
 - ※ 경찰대학이 위치한 사리압로드는 퀘타에서도 무장조직들의 테러가 빈번한 곳으로 보안기관을 노린 공격이 10년 넘게 지속 중
 - 테러리스트들은 폭탄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기숙사에 난입하여 학생들을 인질로 잡고 총격전을 벌였으며, 일부는 자폭
 - 사건 직후, [ISIS 연계 테러단체 LeJ\(라쉬카르-에-장비\)](#)가 테러 배후를 주장하였으며, 이는 파키스탄 정부·보안기관에 상징적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로 해석
 - 당시 「나와즈 샤리프」 파키스탄 총리는 테러로 인한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명하면서 테러리스트들의 근거지 소탕과 치안 강화를 위한 조치 지시 등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
- ⇒ 국제테러단체 동향 및 신종테러위협 등 고려,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테러대응체계 및 대테러활동 강화 필요

테러 상식

< 라쉬카르-에-장비(LeJ: Lashikar e Jhangvi) >

- **(결성)** '96년 파키스탄 내 시아파 축출 및 샤리아로 통치되는 이슬람 국가건설 / 이슬람 극단주의를 목표로 결성
 - ※ 테러단체 지정 : UN('03.1), 미국('03.1), 캐나다('03.6), 파키스탄('01.8)
- **(핵심인물)** 「모하마드 아즈말」 (지도자, '04.6 체포)
 - 「유수프 만수르 쿠라사니」 (신드주 카라치 출신, 별칭 「Syed Safdar」 사용)
- **(활동지역)** 파키스탄(펀잡·발루치스탄주 등) 및 인도·아프가니스탄
- **(활동수법)** 시아파 및 기독교 주민 암살, 납치, 폭탄테러 등
- **(주요테러)** '10.9 펀잡주 라호르시 시아파 행사장 대상 연쇄 자폭테러로 277명 사상
 '15.10 신드주 자코바다드시 시아파 아슈라 행사장에 자폭테러로 64명 사상
 '19.4 발루치스탄주 퀘타시 시장에서 시아파 하자라族 겨냥 자폭테러로 68명 사상

